

빛 속 햇살 같은 청춘의 열정



박나래처럼? 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눔광장에서 열린 '2018 청소년축제' 댄스 경연에 참가한 'Funky Point(살레시오 여자고 외)' 팀이 재치있는 표정과 몸짓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최현배·김진수 기자 choi@kwangju.co.kr

1일 제7회 청소년축제가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설 무대는 청소년들이 발산하는 끼와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날 축제는 장대비와 따가운 햇살이 오락가락하는 등 곳은 날씨 속에 진행됐지만, 초·중·고·대학생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축제에 참가한 이들은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시합 1등, 공부 1등이 아닌 노래와 춤, 밴드 공연으로 인생 승부를 건 학생,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 삼아 닦아온 기량을 뽐낸 학생, 단지 춤과 노래가 좋아 여기 까지 왔다는 우리 학생을 화보로 담았다.



화려한 개막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광주일보 주최의 '2018 청소년축제'가 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눔광장에서 개막했다. 개막행사로 여성 댄스그룹 '스탈리'가 화려한 댄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힘껏 뛰어올라 1일 광주 자연과학고 강당에서 열린 3:3길거리 농구 고등부 예선전에 나선 제천대성고와 대한민국 팀이 경기를 하고 있다.



무대 오를 준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공연에 즐거워하고 있다.



도심 속 기타 선율 실용음악부문에 참가한 박현경(전남여고)양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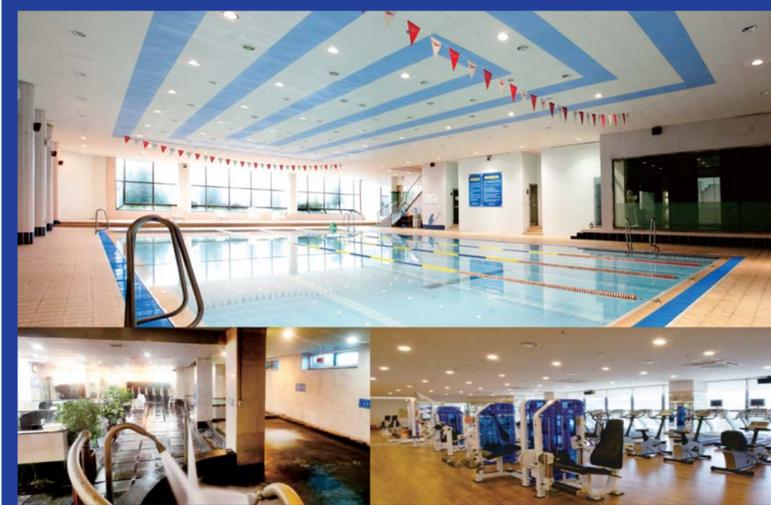
댄스 배틀 청소년축제 경연을 마친 출연자들이 무대 앞에 모여 댄스배틀을 벌이고 있다.



열창의 무대 '2018 청소년축제'에서 밴드부문에 참가한 페르세포네(광주동신고)가 열창하고 있다.



신나게 '2018 청소년축제' 댄스 경연에 참가한 'Lizcrew(운남고 외)'팀이 화려한 몸놀림으로 울동을 펼쳐고 있다.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